

## 가족의 정상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고레에다 히로카즈 "걸어도 걸어도"를 보고-

2016102543 연극영화학과 국선아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영화다. 감독 본인에 따르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영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실제 내용은 전혀 애뜻하지 않다. 오히려 현대 가족주의의 모든 문제점을 전부 내포한다.

죽은 준페이(장남)의 기일을 계기로 온가족이 전부 모여 영화는 시작한다. 그리고는 현실에서 가족들끼리 전부 모이면 발생할 미묘한 불편함을 적나라하게 전시한다. 무능력한 가장 료타와 지나미(료타의 여자형제)의 남편, 꼬장꼬장하고 근엄한 척하지만 자신의 직업을 물려받았던 장남(준페이)에게 집착하며, 불륜을 했던 교헤이(료타의 아버지), 친절하게 유카리(료타의 부인, 남편과 사별하고 료타와 재혼)를 맞아주는 척 하나 실제로는 혈연에 미쳐 아츠시(유카리의 아들)를 배척하는 토시코(료타의 어머니)까지 정말 갑갑한 집안이다. 그나마 이 집안에서 정상적인 인물은 아츠시에게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이제는 료타 또한 너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유카리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지만, 영화 속 가족의 형태는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 특히 부각되는 것은 토시코이다. 극 중 토시코는 대가족 전체를 챙기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희생을 강요 당한다. 모든 것을 다 참는 어머니는 일본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면서까지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웠으나 돌아오는 것은 준페이에 비해서 눈에 전혀 차지 않는 료타이다. 애초에 딸인 지나미는 관심의 범주에나 속해 있는지 의문이다. 그나마 자신의 헌신적인 삶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준페이가 유일하다. 하지만 극 중 준페이는 이미 죽은 대상이다. 요시오(준페이가 목숨 대신 구한 사람)에 대한 토시코의 증오는 여기서 시작한다.

이렇게 꼬일대로 꼬인 가족관계가 평화롭게 마무리 될 리 없다. 영화 제목 '걸어도 걸어도'라는 말처럼 가족간의 정서적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역설적으로 가족주의에서 발생한다.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보자. 바깥일을 하는 아버지,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 세가지 요소가 필수다. 그런데 이 전형적인 가족은 그 기원부터가 문제가 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부장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가족에 딸의 존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직 가문을 잇고, 혈통을 퍼뜨려 줄 아들이 중요하다. 영화 내에서도 딸인 지나미는 거의 스토리에서 감초 수준에 그친다.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부모는 이상적인 아들인 장남 준페이 보다 못한 차남 료타를 내내 불편하게 만든다.

결국 현대 가족주의는 가부장제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폭탄이다. 여성혐오, 혈연주의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요구에 함께 얽히고 설켜 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료타가 '설에는 굳이 또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도 당연하다. 료타는 영화 상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와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아츠시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는 유카리 사이에서는 딸을 낳는다. 자신의 부모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료타가 부모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순 엉터리다. 그나마 이 감독이 탁월한 점은 가족의 꼬인 심리를 잘 풀어내서이다. 문제는 그 심리를 해소 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게으르게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니까'로 합리화한다. 완전히 모순덩어리 아닌가? 오히려 감독은 철저하게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한다. 감독 자신이 정말 가족주의를 비판하고 싶다면 결론을 가족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히로카즈의 영화에서 개인은 그저 가족 속의 인물로서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히로카즈의 모든 영화들이 최악이다. 특히 히로카즈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히로카즈의 영화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점은 현실을 더욱 회의적으로 보게 만든다.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제의 산물인 가족 개념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주의가 관객에게는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도 대다수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옹호한다. 나는 이러한 갑갑함이 싫다. 정말 숨이 꽉 막히는 현실이다.